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계재무위험관리, 가계경제지표, 가계재무비율 구조 분석

허경옥(성신여대)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시키고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집단의 가계재무위험관리, 가계경제구조, 재무포트폴리오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대졸자,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적극적·가족추구형,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과 고졸자의 경우 소극적·불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재무안전관리 지향성 수준은 소극적·불만형 집단에서 낮았고,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은 안전지향적 투자행동을 보이며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이 투자계획을 바꾸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소극적·불만형 집단은 자신의 가계경제복지에 불만족하고 있었고 가계경제와 국가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넷째, 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보험료납입액은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이 다음 순서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은 보험납입액수가 가장 낮고,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으며, 저축액수가 가장 낮아 재무건전성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의 경우도 금융자산 중 부채 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주요어: 라이프스타일, 가계재무위험관리, 가계경제구조, 재무포트폴리오

I. 서 론

최근 효율적인 자산분배 및 자산관리, 투자수익을 위한 가계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부동산, 보험 등과 관련한 업무종사자들, 예를 들면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투자상담사 등은 투자자의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행선

도, 명품구매, 품위유지 등에 관심이 많은 고액연봉여성(‘골드미스’라 지칭)에게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치의 재무목표를 전제로 재무관리를 권고하고 있고, 일부 자산관리사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확정형 상품 30%, 투자형 상품 70%’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아주경제, 2009년 7월 2일). 또 투자회사에서는 소비자의 주거관련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도시형, 전원형, 실버타운형으로 구분한 후 이에 적절한 은퇴자산관리 방법을 조언한 바 있다(프라임경제, 1008년 12월 23일). 한편, 대부분의 자산관리자는 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자산관리방법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관리에서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며, 소비자마다 라이프스타일이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자산관리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기업들은 신용카드 상품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개발한 후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동아일보, 2009년 6월 30일).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부부는 주거대출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가능성을, 레저수요가 많은 경우 주말적립금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레저 특화신용카드, 생활패턴이 다양한 소비자는 포인트 적립이 생활패턴에 맞는 신용카드, 해외여행이 많은 경우 환전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실정 2009년 6월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는 투자에 대한 선호도 및 실천, 노후자금 준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라이프스타일과 재무관리 또는 자산운용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부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 노하우를 제시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자녀교육비와 노후자금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라이프스타일과 물가상승률 반영은 필수라고 강조하였다(여성신문, 2009년 4월 28일). 이들의 논리는 취미생활, 거주지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노후자금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자산관리 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모 증권회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펀드라는 이름의 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또 다른 신문사에서는 자산관리자의 경험담을 소개하였는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이어서 투자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 새벽시간 술집에서 즉흥적인 투자결정을 하기도 하며, 대학교수들은 이론에 밝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재무관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률이 저조하며, 변호사들의 경우 사기사건 등 간접정보가 많아 재무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으며, 의사들은 시간이 없다보니 병원으로 찾아오는 보험설계사들의 말에 의존 주로 보험에 투자하며, 엔지니어 출신 CEO는 거의 채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국일보, 2006년 6월 21일). 이 기사를 통해 직업상의 차이 나아가 삶의 방식 차이가 재무관리행동 및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재무관련 시장에서는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계재무관리, 재무위험관리행동, 가계의 포트폴리오 등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응용한 재무관리 분야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연령대, 가족생활주기, 소득수준, 자산수준 등에 따른 가계재무 관련 주제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과 재무위험관리행동, 가계경제구조, 가계포트폴리오에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시키고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계재무위험관리 및 경제적 복지 평가, 가계경제구조(소득, 지출, 세금, 부채, 저축 및 투자, 은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셋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한 여러 집단의 가계포트폴리오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여기서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함에 있어 선행연구의 재무비율(안전성지표, 성장성지표로 구분)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비교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계의 재무위험관리

대부분의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자, 투자상담사들은 자산관리, 가계재무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위험에 대한 인지, 선호, 감수도 등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비즈프레이스경제, 2009년 5월 15일). 이는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 등 각종 재무 관련 의사결정이나 포트폴리오 구조를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 재무위험관리의 개념이 중요함을 단적으로 알려 준다.

재무위험인지와 보험료에 대한 김경자(2003)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목표나 목적을 위해 최소비용으로 위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계의 재무위험관리라고 정의내리고, 위험의 정도를 인식하는 정도를 재무위험인지라고 밝혔다. 김성민, 길재욱, 김현수(1999)는 위험관리과정이 위험존재, 위험에 대한 인지, 위험회피요구 존재, 위험회피 및 감소를 위한 실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고, 정홍주(1996)는 재무위험관리에서 위험의 존재 사실 인지, 위험의 상대적 빈도와 크기, 가계관리자의 위험관리 능력, 실제 위험관리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민애(1994)는 재무위험의 유형으로 소득감소(예:소득원 사망, 질병 등), 재산가치상실 또는 하락(예:은퇴후 소득감소), 배상 또는 보상책임으로 인한 소득감소(예:자동차사고배상책임)로 구분하였다. 한편, Garman, Forgue(1994)은 위험관리 방법을 위험회피와 위험보유, 손실통제, 위험이전, 위험감소 형태로 구분하였다.

위험관리행동 및 각종 재무 관련 위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험회피/수용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정홍주, 1996; Bajtelsmit & Bemas, 1996; Cordell, 1996; Grable & Lytton, 1998; Sung & Hanna, 1996), 가계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양민애, 1994), 가계재무위험 구성요소 연구(정운영, 김경자, 2004), 재무위기관리행동연구(박명숙, 2003), 금융투자위험에 대한 태도와 위험대응행동 연구(한민희, 신상근, 안성아, 2000), 주식투자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임병진, 2002), 금융부채에 대한 체감도 분석(오만숙, 현승미, 2009)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경자(2003)은 가계의 위험인지, 위험대비수준에 따른 주부의 재무위험인지 수준, 보험료지출액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2. 가계의 재무포트폴리오

가계의 재무포트폴리오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2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저축, 투자, 부채 등의 요소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하나의 연구주제로 다루는 연구와 다른 하나는 이들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는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하나의 연구주제로 다루는 연구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저축액수 결정요인 연구(김정숙, 1996; 양세정, 이영호, 1996; 차경옥, 2003, 김순미, 양정선, 2004), 가계저축포트폴리오 연구(양세정, 1997, 1998, ; 허경옥, 백은영, 정순희, 1997)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가계의 자산투자행동에 대한 연구로서 문숙재, 양정선(1996)는 가계의 위험금융자산과 안전금융자산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투자계획 연구(범수인, 문숙재, 1992), 여윤경, 정순희(2004), 김영숙, 김영숙과 김지현(2003)은 주식투자행동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있다. 또한, 은퇴후의 안정적 삶이 재무관리의 목표가 되므로 은퇴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 은퇴자산 적성성 연구(여윤경, 김진호, 2007),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차경옥, 2008; 주소현, 2008), 은퇴준비를 위한 가계재무관리행동 연구(문숙재, 김순미, 1997; 김순미, 양정선, 1994)가 대표적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채보유 및 부채액수 결정요인 및 관련 연구(문숙재, 김순미, 양정선, 1996; 채은석, 성영애, 2000; 양세정, 2000; 정순희, 2003; 정영숙, 2006), 부채부담 및 상환(성영애, 양세정, 1995; 성영애, 2000; 김학주, 2004, 2005; 이은영, 허은정, 2005),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주인숙, 1996), 적자가계의 특성(이성립, 성영애, 2007), 부채와 가계포트폴리오(이은미, 2002)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조 또는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나의 연구·분석 주제로 다루었던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이 분야에서는 가계자산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은실, 최현자(1998)는 가계 포트폴리오를 유동성 중심, 자산중

식 중심, 위험대비 중심으로 구분한 후 자산수준에 따라 가계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중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박주영, 최현자(1999)는 고자산계층일수록 총자산 중 부동산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밝힌 바 있다. 최지은, 정순희, 여윤경(2005)은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저자산계층 소비자들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보험과 같은 안전한 저축형 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고자산계층 소비자들은 저축, 신탁, 유가증권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투자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로 인한 수익률에 있어서 고자산 계층의 경우 저자산 계층보다 약 10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예: 강혜경, 1990; Weagley, Gannon, 1991; Warner, Cramer, 1995)에서도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 개발이나 응용 연구(김민정, 최현자, 2007;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2003), 가계재무상태 조사연구(김순미, 1998; 김연정, 1998; 박진영, 2008; 김인숙, 2003; 성영애, 2003)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의 연구는 재무설계 또는 재무관리를 시작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재무상태 진단이므로 연구주제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분석 또는 평가함에 있어 재무비율의 개념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김연정(1998), 배미경(2001), 최윤지, 최현자(1998),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가 제시한 재무비율의 개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의 의미와 준거기준(최현자 외, 2003)

재무상태 평가지표		재무비율	개념		준거기준
안전성 지표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소득	소비성향과 적자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낮을수록 좋음. 저소득층의 경우 너무 낮아도 문제	<0.9
	비상자금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현재 생활수준을 몇 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함	>1
		금융자산/ 월평균가계소득	금융자산에 대한 월평균가계소득의 비중을 대치하여 계산가능	높을수록 바람직함	>1

	위험 대비 지표	월평균보험료/ 월평균가계소득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파악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지나치면 현재 소비를 위축시킴	$0 < < 0.2$
	부채 대비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가계소득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낮을수록 바람직함	< 0.25
		총부채/ 금융자산	부채상환능력지표이며, 추가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낮을수록 바람직함	< 10
		총부채/총자산	부채청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낮을수록 바람직함	< 0.8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가처분소득	저축성향을 통하여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함	> 0.1
	투자성향 지표	실물자산/ 총자산	투자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지나치게 높으면 유동성을 저해시킴	< 0.9
		투자자산/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계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	높을수록 수익성을 높아지나 위험성도 증가	$0.05 < < 0.1$
	유동성 지표	금융자산/ 총자산	가계의 유동성을 알려주는 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노년기가계에 특히 중요	> 0.1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현자 등(2003)의 재무비율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무비율의 개념을 안전성지표, 성장성지표로 구분하였고, 안전성 지표는 가계수지지표(생활비/소득), 비상자금지표(금융자산/소득 또는 생활비), 위험 대비지표(보험료/소득), 부채부담지표(부채상환액 또는 총부채/소득, 금융자산, 총자산)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장지표의 경우 저축성향지표(총저축액/가처분소득), 유동성지표(금융자산/총자산), 투자성향지표(투자자산/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들의 연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계 중 안정성 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가계는 약 22%에 불과하며, 가장 기본적인 가계수지지표 준거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계는 절반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계의 투자자산 보유수준은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 안전지향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투자성향에서도 약 27%이상의 가계가 총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거주주택으로 인한 실물자산으로 구성하고 있고,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이다.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사회학자인 Weber와 정신분석학자인 Adler(1974)로부터 유래되고 있다(정순희, 김현정, 2002).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사회학, 심리학, 마케팅 등 관련 분야에서 활용하면서 그 개념의 정착과 사용이 확대되었다. Engel, Blackwell, Miniard(1995)는 라이프스타일을 사람들이 생활하고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양식이며, 소비자들의 동기, 학습욕구, 사회계층, 그리고 여타 변수들의 함수라고 정의 내렸다.

한편,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적 분석방법과 미시적 분석방법이 있는데, 거시적 분석방법은 집단이나 사회전체의 동향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시적 분석은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화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채서일, 1994). 다시 말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집단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마케팅, 소비자행동 측면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미시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Plummer, 1974; 박성연, 1996). 미시적 분석의 대표적인 측정방법은 AIO(Activities, Interest, Opinions) 조사이다.

현대 인간의 삶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영, 경제, 생활분야 등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응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재무관리행동, 재무위험인지나 위험관리행동, 가계재무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라이프스타일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다만, 라이프스타일과 유사한 개념인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재무 분야 선행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생활주기와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라이프스타일과 재무관리행동 및 가계포트폴리오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agley, Gannon(1991)은 Missouri 거주 가계를 대상으로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한 후 자산보유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고 있으나, 퇴직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을 줄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Xiao(1996)는 생애주기와 가계소득에 따라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이은실, 최현자(1998)는 자녀미취학기에서 노년기가 될수록 자산의 종류(예:소득, 유산상속, 비상금, 퇴직연금 등)는 줄어드나, 부동산 투자비중은 증가함을 밝혔다. 생애주기가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앞서의 연구결과는 정운영(1996), 김순미(1987) 등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정운영, 한경미(2004)는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 적절도에 관한 연구를, 여윤경(2009)는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위험자산 선택행동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시키고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집단의 가계재무위험관리 및 가계경제구조(소득, 지출, 세금, 부채, 저축 및 투자 등), 가계의 재무포트폴리오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여기서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함에 있어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2004)의 재무비율(안전성지표, 성장성지표로 구분)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비교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라이프스타일, 가계재무위험인지, 위험감수도, 위험관리, 경제적 복지감, 가계경제구조 등의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비조사는 2004년 4월 1일부터 보름간 20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5월, 1달간 실시하였다.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19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한 문항은 Sproles, Kendall(1986)의 CSI(Consumer Style Inventory)척도, 조형오(1996), 채정숙(2001), 김영신의(2000)의 연구를 참조하되, 라이프스타일 측정의 대표적 방법인 AIO법을 활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4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는데, 적극활동형은 나는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 등 모임이나 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질문으로, 삶 태도는 현재의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개 문장으로, 사회관심 요인은 우리사회의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나는 사회문제에 나 나름대로의 의견이 강하다, 2개 질문으로, 가족지향 요인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여가/취미활동은 가족과 같이 해야 한다, 2개 질문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계재무위험관리행동은 안전지향성, 위험수용성, 투자계획변동성 변수로 구분하였는데, 안전지향성의 경우 4개 질문(내적 타당도, Cronbach's α 값, .64),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질문

은 다음과 같다: i) 나는 선발기업이나 재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기업 위주로 주식투자한다, ii) 주식이 대폭 떨어지면 주식투자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iii) 돈의 여유가 있을 때만 그 한도 내에서 투자계획을 세운다, iv) 나름대로 위험범위를 정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위험수용성의 경우 3개 질문(Cronbach's α 값, .65)으로 측정하였는데, i)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단기간에 15% 떨어지면 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같은 종목을 더 매수한다, ii) 나는 고수익과 고위험을 가진 투자대안을 선택하겠다, iii) 벤처기업으로 향후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투자계획의 불변성은 2개 질문(Cronbach's α 값, .66),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i) 한번 투자계획을 세우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편이다, ii) 새로운 정보를 얻더라도 현재 투자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이다.

주관적 경제복지에 대한 측정은 미래 가계의 경제복지 전망, 가계경제만족도, 미래 국가경제 전망으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경제복지에 대한 미래전망은 3년 뒤 우리 가정의 경제사정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래 국가경제의 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3년 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에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좋을 것이다, 2개 질문(Cronbach's α 값, .60),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계경제에의 만족도는 i)친구나 이웃과 비교할 때 우리 집의 경제생활수준에 만족한다, ii) 과거에 비해 우리 가정의 경제생활수준에 비해 만족한다, 2개 질문(Cronbach's α 값, .83)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가계의 경제적 지표 측정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경우는 예금, 적금, 보험료, 갯돈, 빌려 준 돈, 주식의 합으로 측정하였고, 실물자산은 부동산(주택+토지+건물+전세 및 월세)과 각종 회원권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가계재무비율 변수는 최현자 외(2003)의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 11가지 지표를 도입하여 측정하였다. 안전성 지표로서 i) 가계수지지도(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ii) 비상자금지표 2가지(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iii) 위험대비지표(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iv) 부채대비지표 2가지(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를 측정하였다. 또한, 성장성지표로서 i)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ii) 투자성향지표로서 2가지(실물자산/총자산, 투자자산/총자산, iii) 유동성 지표(금융자산/총자산)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경제지표, 투자유형 및 경제복지평가, 가계재무비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구분할 것으로 사료되는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때,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할 수 있는 요인을 정한 뒤,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비슷한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묶고자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나눈 후 이들 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집단이 가계경제지표, 투자유형, 경제복지평가, 재무비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분류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 중 하나인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PSS Window(Version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여성의 경우 56%, 남성은 44%이다. 소득수준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평균소득은 377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사대상자 중 약 29%,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약 25%, 301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29%, 501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17%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평균은 38세로 나타났고, 20대 26%, 30대 32%, 40대 25%, 50대 17%로 나타났다. 가족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약 3명으로 나타났는데, 2인 이하 가족의 경우 약 9%, 3인 24%, 4인 가족의 경우 53%, 5인 이상인 경우는 15%로 드러났다. 학력을 조사한 결과 약 29%는 고졸이하, 71%는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2/3 정도는 기혼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략 절반이 조금 넘는 56%의 조사대상자가 소유하지 않았고, 44%는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22%는 취업하지 않았으며, 78%는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이 취업한 경우는 13%, 비전문직 취업자는 87%(비취업자 포함)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가계경제 상황에 대한 것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년 평균 가계근로소득의 경우 4천5백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유한 금융자산(예금+적금+보험료+갯돈+빌려준돈+주식)은 7천2백3만원, 실물자산(주택+토지+건물+전세 및 월세)은 5억2천1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보유한 총 부채액수는 4천2백676만원이었다. 한 달 평균 저축하는 액수는 87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약 206만원, 월 부채상환액수는 18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달 내는 월 보험료는 36만원으로 나타났다.

2.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소비자집단 분류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Scree-test 결과 고유치(Eigen value)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4개 요인을 선정하여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직교회전 시켰다. 그 결과 요인 적재량이 0.5이하로 나타나거나, 어느 한 요인에 대해 뚜렷이 높은 적재량을 보이지 않는 4개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4개의 소비자구매행동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후 4개 구매행동 요인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타당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표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적극성 요인의 신뢰도는 0.51, 삶만족 요인은 0.70, 사회관심 요인은 0.71, 가족 지향 요인은 0.47로 나타났다.

첫번째 요인은 적극성 요인으로 매사에 적극적인지, 친구 등 모임에 적극적인지를 조사하는 질문으로 '적극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 분산은 10%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삶만족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21%로, 현재의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삶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인 사회관심요인은 우리 사회의 방향에 대한 고민, 사회문제에 개인적 참여의사가 강한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관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넷째 요인인 가족 지향 요인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가족과의 공유 정도에 대한 질문이므로 '가족지향 요인'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에 따라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수행된 요인분석 결과로 추출된 4개의 요인을 가지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군집의 수를 정하기 위하여 먼저, 나무그림(dendrogram)으로 전체적인 data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한 결과 최종적으로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나무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결정한 5개의 군집의 수가 적절한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군집의 수를 4개, 5개, 6개로 분류한 후 각 군집의 빈도수의 적절성,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통해 군집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는가를 재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적으로 군집의 수를 4개로 정한 뒤,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K개 평균연결법(K-Mean)방법을 실시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소비자의 구매행동 요인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을 경우 집단 간 구매행동의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여 분류된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4개의 집단은 <표4>에 제시한 바와 같이, 4개 요인의 특성이 분류된 4개 집단에 담겨져 있으며, Duncan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한 각 집단들의 명명 및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집단 1은 전체의 약 24%인 46명의 소비자로 이들은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며, 삶만족 요인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불만이 높은 집단으로서 가족지향성도 낮으므로 이들 집단을 '소극적·불만형'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2는 58명의 소비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 소비자의 30%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적극성을 띄고 있고, 삶만족요인도 높은 편이며, 사회관심의 정도가 보여지며, 특히, 가족추구 성향이 높아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전체의 10%인 19명으로 매우 소극적이며, 사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집단이므로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전체의 37%인 71명의 소비자로써 적극성이 가장 높고, 삶만족 성향도 가장 높으며, 사회관심고 가장 높은 집단이므로 이 집단을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3.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한 이들 소비자 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χ^2 test)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과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를 분포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의 경우 적극적·가족추구형에 속하거나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소극적·불만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고졸자의 경우 소극적·불만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 대졸자의 경우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에 속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적극적·가족추구형에 속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적극적·가족추구형으로 나타났다.

4.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투자행동유형의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집단의 투자행동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그리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한 집단의 투자행동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에 있어서 안전지향성의 경우 소극적·불만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의 경우 가장 안전지향적인 투자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수용성의 경우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계획